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December 14, 2025, 10:30 a.m.

대강절 세번째 주일 (Year A)

Third Sunday of Adven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393 오 신실하신 주 (D) Great Is Thy Faithfulness

H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E) I Will Sing My Redeemer

C1249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G) The Lord Has Displayed His Glory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1:2-11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Em) O Come O Come Immanuel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Lottie Moon 크리스마스 헌금
-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35:1-10

-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눅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 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 10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편 PSALM 146:5-10

-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 6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다
- 10 시온아 여호와와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인내함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 공부 초점: *인내하라*

생명의 말씀

인내.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주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인내를 뜻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오래 참음”(long-suffer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들은, 재물만을 의지하며 일꾼들을 억압해 온 “부한 자들”(약 5:1, NRSV)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한 부유한 억압자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썩고 녹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 5:1-3).

이와 대조적으로, 저자는 7 절에서 전혀 다른 대상, 곧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약 5:7)

1. 인내와 오래 참음은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2.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날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의 강림”이라는 표현은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며(약 5:7-8), 재판장이 문 앞에서 계신다는 이미지 속에서도 암시됩니다(9 절). 곧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는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태도이자 삶의 표현입니다.

3. 어떤 사람이 오고 있고, 그것도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4.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내에 대한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인내에 대한 세 가지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예입니다(약 5:7). 이 비유는 농사를 짓거나 정원을 가꾸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때를 따라 비를 기다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수확을 미루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의 예입니다(약 5:10). 그들은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과 인내, 곧 오래 참음의 본이 됩니다.

셋째는 욥의 예입니다(약 5:11). 그는 재난으로 집과 가족과 생계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5. 이 세 가지 예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공감이 되나요?

일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인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의 강림, 곧 헬라어로 “파루시아(parousia)”에 대한 기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당시의 신실한 이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지 질문하는 우리에게도, 야고보의 권면은 분명히 울려 퍼집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8)

6. 인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은 무엇일까요?

7. 인내란 불의와 억압 앞에서 온유함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나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익숙하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주한 쇼핑객들, 넘쳐나는 주차장, 막혀 버린 도로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노리는 소매업자들이 매장 개점 시간을 점점 앞당기면서 추수감사절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교묘하게 “그레이 목요일”로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알뜰 쇼핑객들은 살 선물 광고 전단을 한 장 한 장 진지하게 살펴며, 믿기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특가 상품을 잡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느라 가족 모임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쇼핑객들은 이 매장에서 저 매장으로 서둘러 옮겨 다니며, 최고의 거래를 향해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8. 이러한 연말 쇼핑 풍경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9. 이러한 연말 마케팅의 광풍은 당신의 강림절과 성탄절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처럼 계절의 분주함과 소란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8, 개역개정)

인내하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챙겨야 할 세일이 너무 많고, 포장해야 할 선물이 너무 많고, 준비해야 할 식사가 너무 많으며, 그날이 오기까지 남은 쇼핑 날짜는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심”, 곧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어진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수세기 동안 기다려졌고,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금요일”로 이어지는데, 그날은 “성금요일(Good Friday)”이라 불립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그 오심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집중된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광기와 완벽한 선물을 찾기 위한 광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굳건하고 결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선물이 발견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선물이 이미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선물이자, 계속해서 다시 또다시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8, 개역개정)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딱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만큼 가까이 있으며,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만큼, 혹은 도움이 필요하여 찾아오는 그 사람만큼이나 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로 기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1. 인내와, 때로는 우리를 재촉하는 능동적인 삶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2.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당신은 어떻게 하면 더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

이번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찾아보세요.

기도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오심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많은 방식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1:2-11

-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